

'힘빠진 對與전선'... 민주, 제 1야당 맞아?

18대 국회가 개원 됐지만 민주당이 좀처럼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81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야권공조, 민심을 한발 앞서 읽는 이슈 제기 등으로 정권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나 여당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대안 마련에도 힘이 부쳐서다.

지난주 이뤄진 국회 긴급국정현안 질의는 이 같은 민주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세균 대표체제 출범 이후 쇄고협상 등 정부의 실정을 도마에 올리겠다는 단단히 별다른 것과는 달리 숨 방방이 대어공세를 뽐냈던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은 사안마다 강력한 새로운

小野 한계...야권 공조·이슈제기 등 제 역할 못해

금강산 피격 등 현안 밀려 특위 활동도 지지부진

이슈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국정현안 질의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여당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9일 김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야심 차게 꺼내들었지만 수적 열세로 발의조차 못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상 전혀 없는 상태다. 캐스팅보트를 원 본 보수 성향 자유선진당과의 엇박자로 야권 공조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남은 국정현안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바둑 고삐를 죄고 있다. 쇄고협상과 관련, 정부에 200여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가 하던 외부 전문가 그룹을 초청한 준비 작업에 나서는 등 전의도 불태우고 있다.

정책위 차원에서 각 특위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한편 ▲한우 축산농가 대책 ▲중소기업 지원 대책 ▲경유 인상 대책 등 민생대책 마련에 주력해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금강산 피격사건과 독도 파문 등 파괴력 강한 현안에 가려 특위활동은 시작도 하기 전에 깊이 빠진 상황이다. 특위의 이슈들이 상당기간 장외에서 논리 공방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강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별다른 주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료 협조에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을 잡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 81석의 민주당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미성년자 관람불가' 광주시의회



김주성
정지부 부장

광주시의회가 봉쇄됐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K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에 의해, 김박원 의장 등 시의원들은 시위대에 막혀 분회의장에 한발짝도 들어놓지 못했다. 분회의는 2시간 10분동안 공전했다.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의회 모습이다.

주민자치의 전담이 주민들에게 봉쇄 당한 이날, 광주시의회는 운영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뽑아 후반기 원구성을 마칠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의원을 어떻게 어린 학생들의 교육관련 예산을 다루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느냐"는 항의에 의원들은 주춤했다. 이어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이 9대 9로 나뉘어 대책을 속의했다. 주류 측에선 "(비주류가) 해도 너무했다"며 K의원을 교사위원장으로 민것을 비난했고, 비주류에선 "주류가 싸움이라더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는 반응이 나왔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잘못된 상대편 나무라는 데 맞탄 있었다. '섹스 스캔들'에 조직폭력배들이나 내세우는 '패거리 논리'만 난무하는 꼴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같은 장면은 사실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 내내 계속됐다. 의장 후보들의 정권과 비전을 들는 시민 토론회에 강박된 의장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 시작이었다. 강 의장은 분회의장 정경 발표만으로 충분하다며 불참했다. 주민 대표가 주민 요청을 무시한 모양새였다.

의장 선거에 앞선 정경 발표도 기대 이하였다. 집행부 감시 방법이나 미래 비전 등으로 정책개발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은 꿈에 불과했다. 의정비 인상, 유급보좌관제 도입 같은 제법 그럴 듯이 기대를 받았다.

3차까지 간 의장 선거의 기준은 정책이 아닌 네 편이나 내편이냐는 '패거리 논리'였다.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감표위원에게 투표지를 살짝 보여주는 장면까지 나왔다.

상임위원회 선거날인 지난 14일, 시의회는 격투장으로 변했다. 위원회 배정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먹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위원장 축하 꽃다발을 내다던지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 사이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돈을 뿌렸다는 구소했고, 부산시의회·경기도의회에서도 의정장들을 둘러싼 구품 수의혹이 불거졌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독점하고 있는 의회들이다. 이들 의회 모두 누구 하나 사태를 설명하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들을 뽑아준 주민 입장에서 패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억울할 할 수도 없다. 정당들이 자질 없는 인사들을 공천해도 '묻지마 투표'로 당선시켜준 책임이 있지 않는가.

/jnews@kwangju.co.kr

민주당판 '여의도 연구소' 만든다

기존 연구소 통합...원장에 김효석 의원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역할 재조정을 통해 당의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는 중추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연구소가 전체 국고보조금의 30%라는 저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 기관임에도 정국 대응력과 장기 전략 마련 측면에서 여의도연구소에 뒤졌던 게 사실이라고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한반도전략연구원과 국가전략연구소의 이사회를 각각 개최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마치고 8월 중순까지 신설 정책연구원의 역할 및 구조에 대한 가닥을 잡아 늦어도 9월 초까지 연구소를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여의도연구소를 모델로 한 정책연구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당내 최고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김효석(사진) 의원을 내정하고, 기존의 연구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인적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 대통합민주신당의 한반도전략연구원, 구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 등 자체 연구소가 있었지만 당의 싱크탱크로서 온전한 역할을



'강기갑 VS 이수호'...민노당 대표 결선투표 돌입
민주당동당이 20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7일 결선투표에서 1, 2위에 오른 강기갑, 이수호 후보가 손을 들어 답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木浦사람 다 됐네

지역구 머물며 애로청취 등 주민과 소통 분주



무소속 박지원(목포) 의원이 열정적으로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총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활동을 수행(11일), 6·15남북정상회담 8주년 기념식 준비(15일), 신병치료(4일) 등을 뺀 대부분의 시간을 목포에서 머물렀다. 1주일에 4일 이상 지역구의 민심을 살핀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동부·자유·청호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중앙식료시장, 향동시장 등 목포 시내 모든 재래시장과 상가를 발로 뛰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찾아 애로사항을 들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를 챙겼다.

박 의원은 서남해안포럼간담회, 문화예술CEO

대학 초청 특강, 서부항운노조 대의원대회, 대한조선 HN-1001호 명명식, 압해대교 개통식, 목포시 의사회 장학금 전달식, 예향 목포작가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각급 학교 동문행사 등 모두 102건의 행사에 일일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와도 활발한 접촉을 벌였다.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활용해 목포를 비롯한 서남해안권 발전을 앞당기고, 국고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목포권 등 서남권이 투자유치촉진법을 활용해 현황해시대의 대중국 교류거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llsee@kwangju.co.kr

이상득-정두언 '화해의 만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지난 16일 시내 모 호텔에서 '권력 사유화' 문제를 제기한 정두언 의원의 '화해 만찬'을 갖고 그동안 불편했던 감정을 털어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이 전 부의장이 이춘식 의원에게 주선을 부탁해 마련됐으며, 이 전 부의장과 이 의원, 정 의원과 함께 정태근 의원의도 함께 했다.

정두언 이춘식 정태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별로 정부부시장을 맡은 인연이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산실적인 '안국포럼'의 핵심 멤버였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인 이 전 부의장과 정 의원은 지난 18대 공천 과정에서 '형남 공천' 파문 이후 '권력 사유화' 발언을 정 의원이 주도하면서

갈등관계를 보여왔다. 만찬을 주선한 이춘식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부의장과 정 의원은 경선 때부터 힘을 합쳤다"면서 "그런데 두 분이 최근 불화의 모습을 보여 주위 사람들의 화해 권유속에 두 분의 뜻이 맞아 자리를 함께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만찬에서는 국민을 위해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서 "내가 인사에 개입했는데 개입한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고, 정 의원은 "저도 오해가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롯데관광 LOTTE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구 도청 옆)

광주남구점 062-654-0033 | 근 신 점 062-245-0006 | 목 포 점 062-245-0005

순 천 점 061-755-7114 | 광주롯데점 062-227-5310 | 전주롯데점 343-289-2855

원 신 점 063-843-3600 | 광주현점 062-974-3050 | 전주시흥점 343-282-2210

중국 무안출발

- 상해(위터월드), 항주, 서징 4/5일 ₩659,000~649,000
- 상해(신천사 SPAHDAV) 4/5일 ₩899,000~819,000
- 상해(장가계(원가계), 항주 5/5일 ₩989,000~1,139,000
- 상해(황산, 항주 5/5일 ₩659,000~839,000

일본 무안출발

- 과속선[다미도 역사탐방] 2/3일 ₩299,000~399,000
- 일본(후쿠오카)복귀수 온천여행 5/5일 ₩449,000~579,000
- 카탈라냐 하우스(스페인)복귀수 온천4일 ₩569,000~589,000
- 아사(베틀)스키에 3/3일 ₩299,000~419,000

북해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 북해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4/5일 ₩1,690,000~1,790,000
- 북해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4/5일 ₩1,290,000~1,690,000
- 북해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5/5일 ₩1,490,000~1,790,000

중남야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 푸켓 5/6일 ₩749,000~899,000
- 비탈리 5/6일 ₩799,000~899,000
- 타이안, 다낭, 후에 5/6일 ₩799,000~899,000
- 몰리타, 라웁 5/6일 ₩799,000~899,000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5/6일 ₩999,000~1,099,000
-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6/7일 ₩1,990,000~2,090,000
-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8/9일 ₩3,499,000~3,799,000
-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10일 ₩3,199,000~3,499,000

유럽 인천출발

- 유럽3개국(네스)복귀수 8일 ₩4,199,000~4,499,000
- 유럽3개국(네스)복귀수 10일 ₩3,899,000~4,199,000
- 유럽3개국(네스)복귀수 9일 ₩3,099,000~3,399,000
- 유럽3개국(네스)복귀수 12일 ₩5,899,000~6,199,000